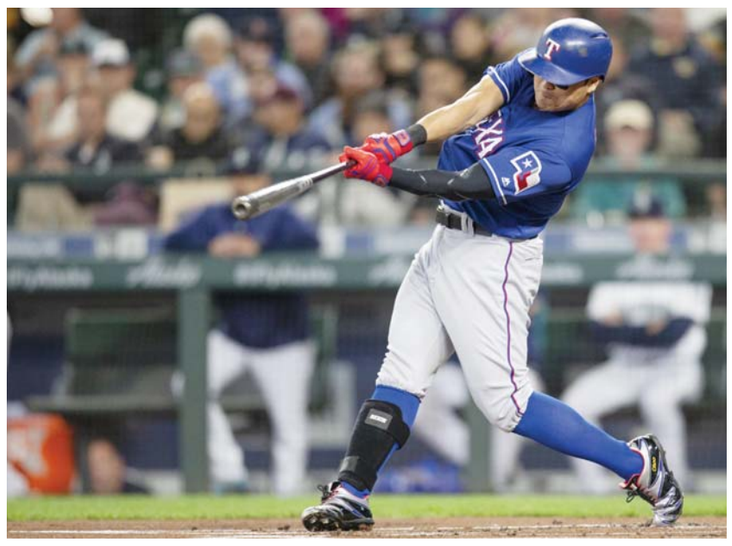
추신수, 3년 연속 20홈런

메이저리그 진출 이후 최초

텍사스, 미네소타에 3-6 패배



추신수(37 · 텍사스 레인저스)가 메이저리그 진출 이후 처음으로 3시즌 연속 20홈런을 달성했다.

추신수는 19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 글로브라이프파크에서 열린 2019 메이저리그 미네소타 트윈스와 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시즌 20호 홈런을 쳤다.

추신수는 팀이 2-3으로 밀린 7회말 선두 타자로 나서 바뀐 투수 샘 다이슨의 3구째 포심 패스트볼을 공략해 좌측 담장을 넘겼다.

지난 11일 밀워키 브루어스전 이후 7경기 만에 나온 추신수의 시즌 20호 홈런이다.

2017년 22개, 2018년 21개의 홈런을 날린 추신수는 이번 시즌 홈런을 20개로 늘리며 3시즌 연속 20홈런도 달성했다.

한 시즌 개인 최다 홈런 기록도 정조준하고 있다.

추신수의 한 시즌 개인 최다 홈런은 2010, 2015, 2017년에 기록한 22개다. 앞으로 홈런 3개만 더하면 개인 최다 홈런을 경신할 수 있다.

앞선 세 번째 타석에서 경기 첫 안타를 생산하기도 했다.

4회말 2사 1루에서 상대 선발 마틴 페레스를 상대로 우전 안타를 뽑아냈고 후속 타자 대니 산타나 타석 대 도루로 2루까지 진루했다.

다만 산타나가 땅볼로 물러나면서 득점을 올리진 못했다.

이날 추신수는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도루를 기록했다. 시즌 타율은 0.271에서 0.272로 올랐다.

한편, 텍사스는 7회말 추신수의 동점 홈런에도 8회초 3점을 빼앗기며 승기를 내줬다.

2사 만루 위기에서 미네소타의 호르헤 폴랑코가 싹쓸이 적시 3루타를 뽑아내 한 번에 3점을 올렸다.

결국 텍사스는 3-6으로 졌다.

4연패에 빠진 텍사스는 60승64패가 됐고 4연승을 달린 미네소타는 76승48패가 됐다.

뉴스1

'투어 챔피언십 진출' 임성재, PGA투어 신인왕 보인다

김시우 이후 3년 만에

임성재(21 · CJ 대한통운)가 2018-19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신인중 유일하게 플레이오프 최종전 투어 챔피언십에 진출했다. 임성재는 한국인 첫 PGA투어 신인왕 수상에도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임성재는 19일(한국시간) 막을 내린 PGA투어 플레이오프 2차전 BMW 챔피언십에서 최종합계 13언더파 275타를 기록, 공동 11위를 마크했다.

이번 대회 전까지 페덱스컵 랭킹 26위에 올라있던 임성재는 랭킹을 24위로 끌어올렸다. 이로써 임성재는 페덱스컵 랭킹 상위 30명이 출전하는 투어 챔피언십 출전권을 확보했다. 한국 선수가 투어 챔피언십에 출전하는 것은 2016년 김시우(24 · CJ대한통운) 이후 3년 만이다.

지난해 웹닷컴투어(2부투어) 상금왕에 오르며 PGA투어에 진출한 임성재는 시즌 내내 꾸준한 활약을 펼쳐왔다. 비록 우승은 없었지만 임성재는 34개 대회에 출전해 톱10에 10차례 진입했다. 최고 성적은 지난 3월 아놀드 파머 인비테이셔널에서 기록한 공동 3위.

우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성재는 유력한 신인왕 후보로 꼽혀왔다. 신인왕 경쟁자인 콜린 모리카와, 캐머런 챔프, 애덤 롱(이상 미국) 등은 모두 이번 시즌 우승을 차지했지만 임성재는 꾸준한 활약을 펼친게 강점이다.

임성재는 투어 챔피언십 출전으로 신인왕 수상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 모리카와, 챔프, 롱, 윈덤 클락(미국) 등 BMW 챔피언십에 출전한 신인 중 오직 임성재만이 투어 챔피언십 출전에 성공했다. 신인으로 투어 챔피언십까지 진출한 것은 역대 9번째다.

2007년 페덕스컵이 도입된 이후 가장 높은 순위에 오른 신인이 신인왕 수상에 실패한 적이 없다. PGA투어 홈페이지는 "임성재는 BMW 챔피언십을 통해 신인왕을 향해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임성재는 BMW 챔피언십 후 "투어 챔피언십에 출전하게 됐는데 너무 설렌다. 목표로 했던 대회에 진출하게 되어 너무 행복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뉴스1

광주세계마스터즈수영선수권대회 결산

[편집자주] 광주세계마스터즈수영선수권대회가 14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하고 18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84개국에서 수영 동호회원 등 6000여명이 광주에 모여 수영을 매개로 우정을 나누고 화합을 도모했다. 2019년 여름 광주에서는 실력의 차이도, 나이와 성별, 언어와 국가, 장애로 인한 차이도 없었다. 단지 모두가 하나되는 진정한 축제만 있었을 뿐이다. 광주세계마스터즈수영대회를 4회에 걸쳐 결산한다.

수영으로 하나된 우정, 광주 문화예술로 꽃피워

외국 관광객 남도 투어 · 문화체험 · 예술공연 참가 호평

광주세계마스터즈수영선수권대회는 문화 · 예술의 도시 광주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광주를 찾은 각국 선수단과 관광객들이 광주 곳곳을 돌아다니며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자연을 즐기며 광주의 맛과 멋, 흥에 흠뻑 빠졌다. 다채로운 공연 · 예술 무대는 광주 전역을 축제의 장으로 변모시켰다.

선수촌 웰컴센터에 마련된 관광상품 예약코너에는 연일 가족, 단체 단위로 관광상품을 예약하려는 참가선수와 관광객들로 붐빌 정도로 광주에는 '외국인 관광 붐'이 일었다.

외국인 관광객은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광주의 풍경과 문화예술을 둘러볼 수 있는 시티투어와 타쇼(TASHOW) 투어버스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타쇼 투어버스는 무등산과 전통사찰을 둘러보고 한옥, 다도, 한복, 전통놀이 등 전통문화를 체험하며 광주의 자연과 문화, 맛을 다양하게 경험하는 프로그램이다. 1일 1회 운영에 20여명을 모집하는데 매번 정원을 초과했다.

타쇼 투어버스에 참여한 독일 남자 수구팀의 피터 선수는 "그동안 체력 소모가 많은 수구를 하느라 심신이 지쳐있었는데 고즈넉한 원효사에 들러 색다른 경험을 하며 컨디션이 한결 좋아졌다"며 "무양서원에서 입어본 선비복이 가장 기억에 남고 옛 책을 만드는 체험도 흥미로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중 · 장기 패키지 여행도 인기였다. 협력여행사들의 관광상품인 남해관광 3박4일 패키지와 할리데이플래너스 9박10일 단체패키지는 하루 2~3팀이 참여하며 남도의 맛과 멋을 즐겼다.

광주 시민의 관광 안내도 돋보였다. 나라별로 지원에 나선 시민서포터즈는 담당 나라는 물론이고 대회를 통해 알게 된 선수단에게 광주의 따뜻한 정을 나눠줬다.

지난 6일 멀리 유럽 최북단에서 광주를 찾은 핀란드 선수들이 광주의 아름다운 거리를 보고 싶다는 요청에 시민서포터즈는 앞장서서 따뜻한 식사와 운림동의 야경을 안내하며 선수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8일에는 브라질, 우즈베키스탄 선수단에게 국립광주과학관을 소개하는 등 시민과 선수단은 함께 광주를 즐겼다.

지난 7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 김대중컨벤션센터 앞 광장에서 열린 광주 최대 맥주 축제 '2019 Beer Fest Gwangju' 1탄 '마셔Brewer' 행사장에서 시민과 외국인들이 맥주 축제를 즐길고 있다

광주세계마스터즈대회 외국인 선수단과 관광객들이 타쇼(TASHOW) 관광버스를 이용해 무등산과 전통사찰 등을 둘러보고 한복, 다도, 전통놀이 등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은 광주의 전통문화에 흠뻑 빠졌다.

전통한옥과 다도, 한복, 전통놀이, 국악공연 등 다양한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전통문화관에는 매일 체험을 위해 찾아오는 외국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월봉서원과 무양서원, 원효사 등에도 체험을 위한 외국인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지난 11일 열린 광주칠석고싸움놀이에는 수많은 외국인이 참가해 세계인이 함께하는 무형유산으로 거듭나기도 했다.

영국의 피터 쥬엘 선수는 "수영 동호인으로 활동하며 많은 나라를 여행하고 문화를 체험했지만 이번 광주에서 경험한 고싸움놀이는 무척이나 특별하고 유쾌한 경험이이었다"며 "수백년을 이어온 전통문화란 것이 참 인상깊다"고 말했다.

대회 기간 매일 광주공연마루에서 우리 예술의 진수를 담은 다양한 무대를 선보인 광주국악상설공연도 호평을 받았다.

호남 출신 대표 국악인 박애리씨의 구수하고 재치 있는 판소리부터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의 관현악 공연, 한국의 빛깔을 몸짓으로 빚어내는 김미숙 뿌리한국무용단의 부채춤 · 춤사위는 외국 관람객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뉴스1